

# 한국의 문화 원형

*Cultural Archetype of Korea Guidebook*



## 문화 원형의 이해, 창세 신화와 한울님 01

*Understanding the Cultural archetypes, and Genesis, Myth and Hanul*

교수자: 이정재

1차시	도입
2차시	문화원형의 이해
3차시	창세 신화 이야기, 창세 신화의 채록
4차시	창세 신화와 무가, 창세 신화의 서사와 의미
5차시	창세 신화의 확장 and 문화원형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K-CULTURE-STORY CONTENTS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 강의개요

주차명	문화 원형의 이해, 창세 신화와 한울님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원형, 창세 신화와 한울님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다.</li> <li>■ 문화원형의 개념 설정 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li> <li>■ 창세 신화의 종류를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다.</li> <li>■ 창세 신화의 서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확장 해석할 수 있다.</li> </ul>	
강의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비디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PPT슬라이드와 오디오 <input type="checkbox"/> 인터뷰 촬영 <input type="checkbox"/> 대화 촬영 <input type="checkbox"/> 현장 촬영	
강의언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어 <input type="checkbox"/> 영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자막언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국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국어 <input type="checkbox"/> 수어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본어)	
차시	차시명	학습내용
1	도입	1주차 강의 개괄
2	문화원형의 이해	문화원형
3	창세 신화 이야기, 창세 신화의 채록	창세 신화 이야기 창세 신화의 채록
4	창세 신화와 무가, 창세 신화의 서사와 의미	창세 신화의 종류 창세 신화의 서사
5	창세 신화의 확장과 문화원형	창세 신화의 해석과 확장
학습활동	<input type="checkbox"/> 동영상 강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읽기 자료(pdf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퀴즈 등 연습문제 <input type="checkbox"/> 토론/토의 <input type="checkbox"/> 시연 및 현장 방문 <input type="checkbox"/> 실습(실험, 시뮬레이션) <input type="checkbox"/> 개인 과제 <input type="checkbox"/> 협력 과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영상 자료 시청 / 간접 탐방·견학)	



## 한국어 스크립트 | Korean Script

### 1차시 | 도입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문화원형 수업을 맡은 이정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1주차로서, 문화 원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창세신화와 한울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 일러들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10주 차까지 한국의 전통문화 전반을 다룰 텐데, 그러려면 양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문화 원형이 확인되는 그런 것들을 집어서 요약해서 좀 다루어야 될 텐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재미있고 쉽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학습목표는 문화원형이란 과연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창세신화, 영웅신화를 살펴보고요. 그 신화들의 뜻과 의미, 이론적 해석을 가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러한 원형적 모습이 과거에의 형태로만 남아있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그 변형된 모습은 뭐가 있을까, 현대로 이어진 문화와 원형의 탐색,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하겠습니다.



## 2차시 | 문화원형의 이해

문화원형의 이해, 문화원형이란 무엇인가? 이해를 위한 접근 방식 및 분류 방식입니다. '원형'을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여러 개가 만들어져 나온 바탕, 근원이 되겠죠. 그 근원에서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근원에 해당되는 게 원형이다. 무슨 물건의 밑그림의 바탕, 그러니까 뭐 옷을 만든다든지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 그 밑그림이 되는 바탕, 그리고 현존하는 생물의 근원으로 생각되는 모델, 우리가 이제 진화론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으로 친다고 그러면은 인간의 어떤 원형적 모습은 뭐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유인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원형이다, 라고 하는데 좀 모호하죠. 그래서 약간 학문적으로 살펴보면 원형은 아키타입(archetype)으로 심리학의 무의식, 구조주의의 문학 구조, 이런 것들과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언어 구조와도 관련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걸쳐 아키타입(culture archetype)은 문화 원래의 존재 형태 혹은 민족이나 인종의 무의식적 정신반응의 경영으로 이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인류의 공통된 의식에 따라서 모두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경향성 혹은 일관성을 형상으로 나타낸 것은 뭐냐, 원형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가능하겠습니다. 역사, 전통 문화 그리고 그의 지속. 이렇게 보면 종교 문화사, 문화 사상사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것을 다시 주제, 장르, 시기, 사상별 등으로 나눌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주제별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예술적 뭐 이런 식으로 주제별 분류가 가능하겠고. 장르별로 나누자면 민속놀이, 민속예술. 민속예술에는 음악. 음악은 다시 아악, 소각, 범패 이런 식으로 이제 미술 연행 등이 분류가 계속될 수가 있겠고요. 또 전통사상도 장르별로 보면 샤머니즘, 유교, 불교, 선교, 도교. 또 문학으로 보면 구비문학, 고전문학. 고전문학은 다시 국문 문학, 한문 문학 이런 식으로 장르별로 굉장히 세분하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시기별로 나눈다고 그러면 고조선 시대 문학, 삼국의 문학,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죠. 또 고려, 조선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사상별로도 애니미즘, 마나리즘, 샤머니즘, 불교, 유교, 도교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과적일까? 그것은 참으로 모호하죠.

그래서 이제 분류하는 실례를 한번 '문화콘텐츠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방문해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문화원형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냐 하는 실례가 있습니다. 이 문화콘텐츠닷컴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문화원형의 분류안을 나눠놓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원형 라이브러리를 주제별 문화원형, 시대별 문화원형, 교과서별 문화원형, 멀티미디어 문화원형, 유네스코 등재 콘텐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제시한 사이트에 방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URL을 적어놨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별, 시대별, 교과서별로 한 것을 다시 나누어 보면, 주제별 문화원형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생업, 종교·신앙, 인물, 문학, 의식주, 회화, 미술 공예, 음악, 군사·외교, 교통 통신, 지리 등 아주 다양한 문화원형의 분류를 하고 있죠, 천문 풍수, 의례, 놀이, 연회 등. 또 시대별 문화원형으로는, 앞서서도 잠깐 나왔지만, 통시대, 고대, 고려, 조선, 근대 이런 식으로. 또 교과서별 문화원형도 있어요, 전국 중등학교 교과서 소재 전통문화. 이러한 분류를 현재 국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문화 원형의 개념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실례는 그러나 많은, 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계라고 한다면, 문화원형이 아닌 콘텐츠를 겨냥한 것이어서 매우 산만하고요. 대중적 활용을 전제로 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심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학문적 접근이 결여돼서 진정한 원형 생성이라 하기가 어렵고요. 한국문화 원형의 보편성, 획일성, 통일성 등이 결여됐다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형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 것이냐?

여기서는 앞선 전체적인 개념과 실용적인 면을 부각하여 다음의 요소를 두루 반영한 원형 개념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1, 2, 3 으로 나눠서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맥락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흥산문화와 신석기 이후의 역사별 전개, 역사별 전개요. 공간적 맥락, 한반도 내 지역별 문화 전개. 또 문화적 맥락, 사상, 주제, 장르별 전개. 즉, 이것을 몰아 말하면 시기, 공간, 문화적 능력을 모두 고려한 원형 개념이 될 텐데요. 그러나 그 원형이 오늘날에도 이어져야 하므로, 그에 대한 문화적 실증과 실례를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례는 많은 변화와 변이를 역사 과정에서 유발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분석이 가해져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단순한 자료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이 있다고 합시다. 집의 원형은 뭘까요? 뭐, 금방 떠오르기 어렵겠죠. 이것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 공간, 문화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시간에 따라 보면 아주 과거의 굴, 움집, 초가집, 너와집에서부터 기와집, 이층집, 빌딩, 아파트 등, 오늘날의 현대의 전원주택 또 친환경 주택, 제로 에너지 주택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원형이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화해 온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에 따라서는 기후와 지형에 따른 구분. 산간지역의 집이나 바닷가, 바닷가에서 수상가옥이라든지 혹은 들판같이 그 지형적 특수 조건에 따라서(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바람과 비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붕이 낮고 담이 높은, 그러한 식으로 해서 바람을 막는 그러한 형태의 주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판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말이나 소, 이 동물들과 같이 합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숙형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들은 산간지역이나 해상가옥과는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간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들판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공간, 여유 공간이 필요해서 넓은 마당이 필요하고 대가족이 모여 살기 때문에 마루라는 것이 필요하고 등 이러한 공간에 따른 구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서양에 따른 차이, 극단적으로는 시베리아에 눈집이나 땅속 움집,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혹은 몽골족의 유르트, 이동이 편리한. 이렇게 공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또 문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또 이제 문화에 따른 구분을 보면 굳이 부유층의 기와집과 평민의 초가집. 불교의 가람, 무당의 신당, 마을의 제당·사당 등 종교적 성소, 왕들이 거처하는 계층에 따른 거주처의 종류 혹은 부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거주 등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엄청난, 집의 원형을 찾아갈 때 이러한 변수들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집의 원형은 뭘냐, 이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컵의 원형은 뭘냐.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형태가 나타나겠죠. 자연물인 나무의 원형이나 인간의 원형. 예를 들어서 인간의 원형은 호머 에렉투스 계열에서 네안데르탈인과 호미 사피엔스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원형을 규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많은 한계를 가진 개념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의 예를 들어서 다시 좁혀서 보면, 집은 사람이 비와 바람, 추위 및 위험요소들을 피해 살림을 할 수 있는 조건 충족이 갖추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원형을 결정하는 결정 요소입니다. 지붕과 벽과 방 그리고 울타리와 적당한 공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요소는 세 개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과 공간,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죠. 그러나 그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앞서 구분한 시공, 문화적 요소에 따라서 다르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문화 원형도 마찬가지로 그 역사와 지역 그리고 누려온 문화적 요소가 핵심적인 조건이 된다. 인간의 삶과 문명은 태곳적부터 원시, 고대, 중세 등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문명과 함께 인간의 의식 수준도 발전을 병행합니다. 즉, 문명과 사상은 분류할 수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이 이제 진화 심리학, 켄 윌버(Ken Wilber) 등으로 대표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문화 원형은 사상적 근원을 찾아 문화적 전개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바른 길이 된다 하겠습니다. 마치 굴이나 움집에서 왕이나 고관대작의 권위와 위엄을 넘어 근대의 물질주의와 실용주의, 그리고 이제는 탈근대의 소소하고 자의식이 충만하게 맞추어진 친환경 주택이나 미니멀 라이프에 맞춘 미니멀 하우스 아니면 전원주택의 진행처럼 인간의 사유방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원형은 사상적 원형이 어떠한가에 따라 문화적 전개가 이뤄진 과정을 일컫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3차시 | 창세 신화 이야기, 창세 신화의 채록

하늘과 땅이 처음 생길 때에 미륵님이 태어났다. 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 떨어지지 않아, 미륵님이 땅의 네 귀퉁이에 구리 기둥을 세워서 갈라놓았다. 하늘은 솥뚜껑의 꼭지처럼 보이게 했다. 그때는 해도 두 개, 달도 두 개였다. 미륵님이 그중 달 하나를 떼어서 북두칠성과 남두칠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해 하나를 떼어서 큰 별과 작은 별을 만들었다. 큰 별은 임금과 대신의 운수를 맡은 별이고, 작은 별은 백성의 운수를 맡은 별이었다. 미륵님이 옷이 없어 옷을 지으려 하였는데, 옷감이 없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칩을 캐서 하늘과 구름을 베틀로 삼아 베옷과 고깔을 만들었다. 그때는 불이 없어서 음식을 날것으로 먹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미륵님은 불의 근본과 물의 근본을 찾기로 결심했다. 풀메뚜기를 잡아와서 형틀에 올려놓고, 무릎을 때리면서 불의 근본과 물의 근본을 아느냐고 물었다. 풀메뚜기가 대답했다. “밤이면 이슬 받아 먹고, 낮이면 햇빛 받아 먹고 사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보다 한 번 더 먼저 본 풀개구리를 데려다 물어보세요.” 미륵님이 풀개구리를 잡아와서 무릎을 때리며 물었더니, 풀개구리가 대답했다. “밤이면 이슬 받아 먹고 낮이면 햇빛 받아 먹고 사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보다 두 번 세 번 먼저 본 생쥐를 데려다 물어보세요.” 미륵님이 생쥐를 잡아와서 무릎을 때리며 묻자, 생쥐는 어떤 대가를 줄 수 있냐고 물었다. 미륵님이 생쥐에게 천하의 뒤주를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생쥐가 답했다. “금정산에 들어가서 한 쪽엔 차돌을 들고 한쪽엔 쇠불이를 들고 툭툭 치니 불이 일어났고요. 소하산에 들어가니 샘물이 솔솔 나오는 물의 근본이 있었지요.” 미륵님이 이렇게 하여 불과 물의 근본을 알게 되었다. 미륵님이 한쪽 손에 금쟁반을 들고, 한쪽 손에 은쟁반을 들고 축원을 하자, 하늘에서 별레가 떨어졌다. 금쟁반에 다섯 마리가, 은쟁반에 다섯 마리가 떨어졌다. 미륵님이 다스리던 인간 세상은 태평했다. 그런데 석가님이 나타나 미륵님의 세상을 빼앗으려 했다. 미륵님이 석가님에게 말했다. “아직은 내 세월이지 네 세월은 못 된다.” 석가님이 말했다. “미륵의 세월은 다 갔다. 이제는 내 세월을 만들겠다.” 미륵님이 다시 말했다. “네가 내 세월을 빼앗겠다면, 나와 내기를 하자. 이 더럽고 축축한 석가야.” 미륵님과 석가님은 동해 가운데에서 내기를 벌였다. 미륵님은 금병에 금줄을 달고, 석가님은 은병에 은줄을 달았다. 미륵님이 말했다. “내 병의 줄이 끊어지면 너의 세월이 되고, 네 병의 줄이 끊어지면 너의 세월이 아직 아니다.” 석가님의 줄이 먼저 끊어졌다. 석가님은 항복하더니, 다른 내기를 하자고 했다. 이번에는 여름에 성천강을 얼어붙게 하면 이기는 내기였다. 미륵님은 동지 제사를 올렸고, 석가님은 입춘 제사를 올렸다. 이번에도 석가님이 졌다. 석가님이 다시 내기를 하자고 했다. 한 방에 누워 있다가 무릎에 모란꽃이 먼저 피어나면 이기는 것이었다. 석가님은 몰래 얇은 잠을 잤고 미륵님은 깊은 잠을 잤다. 곧 미륵님의 무릎에 모란꽃이 피어났다. 석가님은 미륵님 모르게 꽃을 꺾어서 자기 무릎에 꽂았다. 미륵님은 잠에서 깨어나 석가님을 저주했다. “이 더럽고 축축한 석가야, 내 무릎에 핀 꽃을 너의 무릎에 꽂았으니, 꽃이 피어 열흘을 못 넘기고 심어서도 십 년을 못 넘길 것이다.” 미륵님은 석가님의 성화에 지쳐 석가님에게 세월을 주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석가의 세월이 되면 말세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흘 만에 미륵님의 예언대로 되었고, 미륵님은 떠났다.

창세신화의 그 채록과 종류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신화는 어떤 종류의 신화일까요?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평이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고 좀 신비롭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언제 기록된 것이고, 언제 것이고, 또 누가 불렀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 개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오래된 것으

로 학술적 의의가 큰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에게서 한국의 문화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언젠가, 그 말로만 전해지던 것이 언젠가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기록은 상당히 최근에 된 것이지만, 옛날의 그 세계 신화의 기록으로 보면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라트의 점토문자,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신화죠.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5,000년, 6,0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죠.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리스의 신화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채록이 된 것이죠. 음유시인인 호머가 군인이라든지 상류 계층을 상대로 해서 상업적으로 노래를 불러주고 그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제 시로 그 신화를 기록을 하게 된 건데 한국의 경우는 문자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역사 과정이 너무 깁니다. 그 결과 그 신화의 채록은 매우 늦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문자가 아닌 구전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이은 기다란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샤머니즘이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앞서 살펴본 신화는, 창세신화는, 여러분들이 들었던 신화는 샤먼들이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승시켜 내려왔던 샤먼의 노래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 샤먼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노래를 이어 왔는가,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알 수가 있는 것은 일단은 이 신화는 1920년대에 최초로 기록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한국에는 샤먼이 있다는 의미나? 당연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서 제시한 천지창조의 노래와 춤을 추면서 굿 의례와 퍼포먼스가 여전히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한국의 신화 채록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의 신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헌 기록 신화이고 두 번째는 구비 전승 신화입니다. 두 번째부터 보면 구비 전승 신화는 앞서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많은 신화는 극히 최근에 1920년대 3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죠. 이 때에 일제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제 영향 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긴 내용이 필요합니다만, 일제의 학자들의 근대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학자들이 일본 사람들과 같이 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기록 신화 같은 경우는 건국신화를 위주로 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이 됐죠.

한국은 근대화가 일본보다 늦어진 관계로 근대학문과 과학에의 개방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왕족과 관리들이 그들의 왕조를 계속 유지하려 하였기 때문인데요. 세계사의 흐름에 거스르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한반도의 역사는 엄청난 소용돌이의 역사를 겪게 됐죠.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분단과 긴장과 갈등,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인(日人)들에 의한 채록과 기록, 그리고 한일합병기 조선인들에 의한 채록과 기록, 그리고 1960년대~1980년대에 완성된 채록.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일제시대 때에는 아키바 다카시가 『조선 무속의 연구』 상권과 하권 두 권을, 아주 의미 있는 자료를 출간을 했구요. 무라야마 지준이 『조선의 무격』, 『조선의 점복과 예언』, 『조선의 유사종교』 등 많은 자료들을 양산을 했는데, 이것은 순수 학문의 차원이 아닌 당시의 조선을 경영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조선에 설치한 조선총독부라는 기관에서 문화의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전통문화를 조사한 그러한 연구보고서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자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가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일합병기 조선인들에 의한 채록인데, 손진태, 송석하, 정인섭, 임석재 등일 텐데요. 특히 손진태는 우리 신화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조선 신가 유편』이라고 하는 책을 1927년에 출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 학자들은 한국 초기 1세대 민속학 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들은 대부분 일본에 건너가서 유학을 해서 근대 학문 방법을 익히고 배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무가라든지 신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와서 채록을 한 것이 비로소 최초의 신화 채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살펴본 창세신화도 바로 이때에 기록이 된 것이죠. 어떻게 기록이 안 됐더라면 많은 부분을 소실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됐을



수도 있죠. 지금은 많이 소실이 됐죠.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무당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1960년에서 1980년대까지는 1950년대 한국전쟁이 있는 다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왕성한 학문 활동이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김태곤, 박경신, 이두현, 장주근, 김영진, 진성기, 현용준 등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엮은 이는 김태곤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자산을 처분을 해서 커다란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전국을 누비며 『한국 무속신화』 5권을 1980년도에 출판을 했고요. 그외에 『한국 무속 연구』라든지 『한국의 무속신화 연구』 등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는 많은 자료들은 이분의, 김태곤 선생님의 자료를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의 학자들은 순수한 국내의 국학적 관점을 가진 학자들이고요. 독자성과 주제성을 강조하며 연구했던 특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에게도 관심이 될 만한 영어 번역본이 있는데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정인섭이 1952년에 『Folktales from Korea』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최원오가, 이게 이제 무당 무속신화죠. 『An illustrated Guide to Korean Mythology』,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 4차시 | 창세 신화와 무가, 창세 신화의 서사와 의미

자, 그 다음에 창세신화의 종류, 무가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신화의 종류는 말씀드린 대로 김태곤의 『한국의 무속신화 연구』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한 건데요. 첫 번째 천지개벽신화, 두 번째 창세신화, 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지개벽신화는 제주도의 초감제. 이것은 『조선 무속의 연구』 상권에 있는 것으로 앞서 소개한 아키바 다카시가 쓴 책에 실려 있는 것이고요. 또 역시 앞서 소개한 손진태가 쓴 『조선 신가 유편』에는 함경도의 창세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었던 창세신화는 이 두 번째, 함경도의 창세신화가 되겠습니다. 저 함경도의 창세신화는, 함경도는 북한이거든요. 북한에서도 맨 그 동북쪽 끝인데, 적어도 지금은 무당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노래가 되지를 않고 있죠. 전승이 끊어진 겁니다.

그에 반해서 그 제주도의 초감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제주도에서 노래가 불리고 있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두 번째 창세신화는 함경도의 창세가로, 1927년 손진태가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기록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의 1번, 제주도 초감제로 일본인 학자에 의해 채록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들이네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고, 나머지 이본(異本)들도 서사 전개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 20 편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들 신화는 모두 샤먼들이 굿 의례를 하면서 부르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있죠. 건국신화, 기록된 건국신화가 있고, 기록되지 않은 신화들에서 최근에 기록된 것, 1920년대, 1930년대 이때 최초로 기록된 것들을 보니까, 건국신화에 없는 신화들인데 이 신화들이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거죠. 건국신화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의상과 물과 불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창세신화에는 그런 근원을 잘 설명을 하고 있죠. 한국의 문화원형의 어떠한 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당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무당들끼리 이렇게 전승이 되면서 이어져 왔다고 하는 아주 귀중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는 앞서서 소개한 것 외에도 물론 당연히 많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읽기 자료로 제시된 그러한 신화들이 될 테고요. 그것을 김태곤은 한국의 무속신화에서 무가의 종류별로 쪽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316종의 무가를, 방대한 자료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해서 계통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부정계통에서 맨 마지막 열 번째, 송신계통까지인데, 부정계통에는 그 무가, 제의공간을 정확히는 것으로서 부정, 부정거리, 부정풀이 등이 있고요. 이 부정거리, 부정풀이, 이것들이 각각 하나의 무가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청신 계통, 신을 청해 온다는 의미죠. 가망굿, 신맞이, 하정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제주도의 신년맞이 굿은 이러한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초감제, 하정, 세경본풀이, 액막고, 사만이본풀이 등으로 쪽 이어지는데, 이 초감제, 앞서서 잠깐 봤죠? 초감제가 창세신화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창세신화가 청신 계통에서 불린다, 이 말입니다. 아, 그 부정 계통에서 불린다. 그래서, 부정 계통이 맨 처음에 불리고 그때 창세신화가 불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상 계통의 무가가 있고요. 기자 계통. 기자 계통은 자손을 잘 낳게 해달라, 안전하게 많이. 옛날에는 자손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무가들과 노래와 의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명 계통. 오래 살게해 달라, 칠성굿, 장자풀이 등이 되겠고요. 초

복 계통. 많은 복을, 돈을 많이 벌게 해 달라든지 아니면 많은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든지, 자손들이 번창해서 잘 되게 해달라, 이러한 복을 기원하는 거죠. 제액 수호 계통의 무가. 질병이라든지,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긴다든지, 일가친척들의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러한 계통의 무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군웅굿, 서낭굿, 창부굿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뒤에, 다다음 차시에 샤머니즘을 소개를 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병 계통. 몸에 병이 났을 때와 관련된 계통입니다. 병이 났을 때의 무가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것은 손님굿, 호구굿이라고 해서요. 옛날에는 천연두를 많이 앓았죠. 천연두 주사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천연두를 앓고 많이 죽었고요. 또 그래서 천연두를 앓다가 나오면 곰보가 되죠. 지금은 곰보 얼굴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명부 계통.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그러한 무가죠. 그다음에 송신계통, 아까 청신을 했다면 그 신들을 다시 잘 돌려보내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의 그 계통으로 나눠서 무가를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 소개된 창세신화는 무당들이 굿을 하기 전 초입에 불렀던 노래임을 알 수가 있겠죠.

무당들이 하는 굿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태초의 천지창조를 노래를 불러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과 신들 그리고 의복과 불과 물과 음식의 기원이 성스럽게 준비된 세계를 설정해놓고 태초의 완벽한 세계를 불러놓고 인간의 문제를 하나씩 불러서 해결하고 풀이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무당이 하는 의례이고 굿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신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핵심적인 것들을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앞서서 나레이션 됐었던 신화의 개괄을 살펴보면 그 내용과 사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을 보면 이것은 창세가로서 함경도에서 불렸었던 건데, 지금은 북한에 있고 북한 공산정권이기 때문에 더이상 전승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 충청도라든지, 강원도나 제주도 이런 데에서 있기는 있습니다. 처음엔 미륵이 세상을 만들다, 만드는 과정이 설명이 되고 있죠. 미륵이 구리기둥을 세워 하늘과 땅을 분리했죠. 괄호로 '원방사고'를 했는데, 원은 하늘이 둥글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땅은 각, 사각,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사각이다. 그러니까 원과 사각형의 사고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해와 달이 각각 두 개씩 있었는데, 창조주이었던 미륵이 달 하나로는 북두칠성과 남두칠성을 만들고, 해로는 인간을 만들었죠. 큰별과 별을 만드는 큰별은 임금, 대신 담당이고, 작은 별은 백성 담당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의복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의복 영웅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과 불의 영웅인데, 물과 불의 근본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동물들이 메뚜기, 개구리, 생쥐죠. 결국에는 생쥐에게 곡식 창고를 내주고 답을 얻게 됩니다. 즉, 금정산의 차돌과 부싯돌을 부딪쳐서 불을 만들었다, 소하산의 샘물을 얻었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의미는 절지동물 메뚜기, 개구리, 생쥐. 양서류, 포유류로 이어지는 어떤 진화의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근본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은쟁반과 금쟁반을 마련해놓고 각각 쟁반에 벌레 다섯 마리씩을 떨어지게 해서 금쟁반의 벌레는 남자가 되게 하고 은쟁반의 벌레는 여자가 되게 하는. 그래서 미륵의 세상은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됐다.

그래서 이어지는 또 내용이 있죠. 이제 그 미륵의 시대가 태평성대였는데 이제 석가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세상을 자기가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륵이 안 되겠다고 하니깐, 석가가 미륵에게 내기를 하자고 해서 내기를 하는데, 내기가, 세 가지의 내기를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동해바다에 줄을 매서 줄이 끊어지냐, 아니냐, 이것으로 하는데 금병줄이 끊어지지 않는 미륵이 이기게 되고요. 은병줄의 석가가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집니다. 내기 두 번째도 성천강 얼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미륵과 석가가 각각 동지 부채, 입춘 부채를 씁니다. 동지는 겨울 바람을 불었다는 얘기고요. 입춘은 봄바람을 불어서 지게 되죠, 석가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릎에 모란꽃 피우기를 하죠. 그 내기들이 굉장히 좀 생경한 모습으로 전개가 되는데, 사실은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

다. 아무튼 세 번째 무릎에 이제 모란꽃 피우기를 하는데도 잠든 사이에 석가가 바뀌치기를 해서, 미륵이 또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륵이 비겁한 행위를 비난을 하고 저주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미륵이 저주한 대로, 오늘 같은 온갖 범죄와 안 좋은 일이 가득한 이 세계가 됐다.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이승과 저승의 구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이승은 석가가 관장을 하고 저승은 미륵이 관장을 하죠. 여기에서 저승이라고 하기 보다는 현실과 비현실 혹은 초현실, 이런 구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신화들은 사실 중국의 반고 신화나 몽고의 창세신화 또 아프리카 시다모족의 쥐 이야기 등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사한 이야기는 참고자료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될 텐데, 특히 몽고의 창세신화는 한국의 창세신화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륵과 석가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인세(人世)를 차지하는데 내기를 해서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세상을 차지하고, 차지하지 않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떠한 문화적, 어떠한 신화적 깊은 상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 5차시 | 창세 신화의 확장 and 문화원형

자, 앞서서 창세신화의 서사 그리고 그 서사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의미, 이런 것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신화 정리 및 해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 천지창조를 하는 주인공이 창조주가 될 텐데 그게 미륵으로 나타났죠. 즉, 여기에서 창조주인 미륵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를 했다. 그런데 미륵이라고 하면 불교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건데, 창세신화의 다른 이본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라든지 초감제, 이런 데 보면 주인공이 천지왕, 하늘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즉, 하늘님으로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미륵은 하늘님이다, 라고 볼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는 이미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다. 자, 창조주 미륵은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문화영웅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문명의 상태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발전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신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복을 만드는 문제, 또 먹는 것을 담당하는 물과 불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문화영웅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으로서 인간 탄생을 들 수가 있는데, 금쟁반과 은쟁반 그리고 벌레 다섯 마리. 이것이 뜻하는 것은 뭐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해석들을 하고 있죠. 해와 달은 음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쟁반이라고 하는 것은 둥그런 것이기 때문에 뭔가 자궁과 근원이 되는 씨를 의미를 한다. 그리고 원형 쟁반은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공간, 거기에 벌레가 떨어져서 인간이 되니까 이것은 무극(無極)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뜻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왜 하필 다섯 마리냐, 그것은 오행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인간 탄생은 전반적으로 음양오행에 따라서 인간이 탄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상의 주관자가 바뀌게 되죠. 석가는 이승, 미륵은 저승을 담당을 하죠. 미륵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이승을 담당을 해서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전개되게 했는데, 석가가 나타나서 내기를 하자고 하면서, 그것도 속임수를 써서 미륵을 몰아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현실계와 비현실. 이 비현실은 저승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초현실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물질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로도 구분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석가가 속임수를 써서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신화에서도 공히 보이는 어떤 트릭스터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트릭스터는 속임수를 쓰지만은 트릭스터가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기의, 개인을 위한 속임수가 아니라 공동체가 위한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속임수라기 보다는 어떤 지혜의 하나의 단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것은 공동체의 영웅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은 현실세계와 초현실 세계를 같이 아울러야 한다는 어떠한 사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러나는 것이 삼수(三數) 사상이 될 텐데요. 세 번의 내기를 하게 되죠. 하늘 줄 잇기라든지 얼리기라든지 꽃 피우기. 이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극(無極), 태극(太極), 황극(皇極)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떠한 태초의 세계와 그다음에 만물 창조의 세계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삶의 세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수 사상이 아주 도처에 한국의 신화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미륵의 저주, 속임수를 징벌하는 것으로서 '너는 힘들 것이다. 도적과 그러한 나쁜 일들이 많을 것이다.'라

고 했는데요. 수렵유목시대에서 농경시대로 가는 문명의 시대. 이 문명의 시대가 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렇다 하는 것을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확실히 문명시대에는 어떠한 탐욕이 승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문명화의 단면을 지적하고 문명화에 따른 불균형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한 현실 세계와 초현실 세계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어떠한 삶, 무극, 태극, 황극에서 황극 삶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신화는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음양의 세계상으로서의 태평시대에서 혼란한 시대로 전환이 된 것과 또 세상의 어지러움의 근본은 생식에서 화식, 수렵유목에서 농경, 자연에서 문화(로의 전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모두 현실세계와 초현실 세계의 균형을 강요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창세신화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아래의 자료를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성의 『한국 창세사사시 연구』, 1999년에 나왔습니다. 김현선의 『한국의 창세신화』 등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자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이러한 창세신화는 어떤 식으로 문화원형의 모습으로서 확장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요소를 보면 미륵은 창조주의 뜻으로, 하나님, 천제를 의미한다. 자연 및 우주와 인간은 동일 근원이다. 그랬었죠, 해와 달을 나누어서 인간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인합일의 정신. 우주와 인간은 동일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적됐었던 것은 음양오행 사상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수 사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천지인, 원방각, 무극, 태극, 황극 등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다른 창세신화에서, 예를 들어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주인공이 미륵이 아니라 천지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즉 하늘님 혹은 하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원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냐면, '한', 한이라고 하면 '하나' 아니면 '큰, 위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님'이 붙어서 한님. 이것이 풀어져서 한나님, 하나님 아니면 한울님, 하느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다, 유일한. 유일한 어떤 하나가 있다. 이것은 어떤 진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우주의 정칙 내지는 우주의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그것은 크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하느님에는 '하나', 또 '하늘' 또 '한',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퍼져서 오늘날에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 한배검, 하느님, 한가운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창세신화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 창조로 인해서, 비롯돼서 쪽 세계가 전개가 됐는데, 문명화가 되면서 어지러운 시대가 되니까 그때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근원적인 우주, 자연의 근원적인 그러한 것을 잊지 말고 현실과 초현실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이 신화는 가지고 있다. 원형적 요소는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겠죠.

앞서서 계속 봤듯이 하나님 사상, 천지인 사상, 천지인 삼수 사상 그리고 음양오행 사상이 되겠습니다. 창세신화의 하나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동이라고 할 수 있죠, 레반트 지역의 유일신 혹은 유일신 사상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범신론적인 성격의 신으로, 유일한 존재, 천지자연, 하늘과 동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할아버지 상 등의 의미를 두루 함축하고 있다. 또 참고로 성경책을, 기독교의 구약과 신약, 성경책을 번역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야훼, 유일한 GOD, 신을 번역을 할 때, 한국에서 번역을 할 때 널리 알려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것은 이웃 다른 나라와는 많은 차별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상제, '샹띠'라 그러죠. 신, 일본에서는 가미 혹은 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장 뜻풀이가 유사하다고 보는 하느님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독교 유일신 사상에 하느님의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한국의 아까 창세신에서 봤듯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신화의 핵심은 '하나' 그리고 '님'이 붙어서, 그것이 천지인 음양오행 사상으로 발전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의 용어로 해석을 하면, 우주 자연의 신성에 따라 비롯된 만물과 인간은 그 뜻에 따라, 즉, 우주의 신성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신화는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문화원형의 하나의 축으로 삼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사상의 활용의 현장을 그러면 오늘날의 한국의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느냐? 물론 당연히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아래 몇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천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전국적으로 어떠한 시간이 되면 천제 의례를 지냅니다. 국가와 마을 단위의 대대적인, 규칙적인 의례를 지내는데, 유튜브의 '천제란 무엇인가', URL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그걸 복사해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한양, 서울이죠. 서울의 도성에는 성곽을 빙 둘러싸 놔는데, 거기에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대문, 동서남북 사대문과 가운데 보신각으로 해서 5대 문이 있는데, 그것이 인, 의, 예, 지, 신 이렇게 음양오행의 원리죠. 그 오행에 따라서 한양의 대문을 확정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신화에 나오는 사유체계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또 조선시대에도 활용이 됐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글이 창제된 것도 이러한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한글을 창제했다, 라고 하는 연구가 있고요. 또 태극기도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그리고 오방색, 오행에 따른 오방무, 오방춤이죠. 오방신 등에 대한 수많은 음양오행적 문화 원형이 확인이 된다. 그다음에 자료 열람, 한양도성 탐방이라든지 한글 창제법 오방신 등에 대한 참고 자료를 URL을 적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하시면 아주 좋은 창세신화와 문화원형으로서의 매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주차 창세신화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신론적 하나님의 의미와 실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앞서서 창세신화의 문화원형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확장 그리고 그의 확인, 문화적 확인 알아봤습니다. 범신론적 하나님의 설정은 천지인 사상과 음양오행 사상의 형성으로 이어지고요. 하나님의 의미는 신인합일, 이것은 훗날 많은 문화, 전통문화에서 등장하는 신명풀이, 천명, 일심(一心) 등으로 정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당들이 굿을 하는 굿이나, 또 풍물, 판소리, 탈춤 등등에서 두루 확인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날 한국 무속제례의 첫머리에 불리는 부정굿이나 초감제 같은 것들이 오늘도 여전히, 오늘날도 불리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탈춤이나 동제 등 축제에서 하늘에 예를 표하고 의례를 거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루 앞으로도 다른 주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도 어떠한 업체들이 개업식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의례 행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도처에서 확인이 됩니다. 하다못해 대학에서 축제를 할 때도 대동제를 할 때 문열이 굿을 하는데 이런 것도 그러한 문화 원형의 일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신인합일은 자연 혹은 우주와 인간이 근원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달 하나와 해 하나로 나눠 썼던 것을 봤죠. 신인합일은 다른 말로 자연 합일이고 천지인 합일의 비이원적 무위자연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결국, 창세신화는 성스러운 우주와의 합일에 따른 일상생활의 연속을 계시한 문화원형으로 확인이 됐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이론적인 그러한 심화학습은 이정재의 「원본 이론과 트랜스이론」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1주차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 퀴즈

1. 다음 중 한국의 문화원형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 ① 구비 문학
- ② 대학 제도
- ③ 민속 예술
- ④ 전통 사상

2. 다음 중 [보기]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보기]

( )는/은 무당이 제의를 할 때 부르는 노래를 일컫는 말이다. ( )는/은 종류가 다양해서, 부정 계통, 청신 계통, 조상 계통 등 굿의 차례나 상황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다양하다. 창세 신화는 무당이 굿을 하기 전에 불렀던 ( )이기도 하다.

- ① 무가
- ② 민요
- ③ 속요
- ④ 축가

## 2. 영상 자료 시청

5차시 수업 관련 영상 자료

천제

<https://www.youtube.com/watch?v=AEoy5nQbnVA>

## 3. 탐방·견학

경복궁





<https://www.youtube.com/watch?v=IF1P-nH2oTw>

한양 도성

<https://www.youtube.com/watch?v=ot9ZWjZDq94>

## 4. 읽기 자료 열람

1주차 수업 관련 심화 학습 자료

김태곤 외, 『한국의 신화』, 시인사, 2019.

1주차 퀴즈 정답

1. ② 대학 제도
2. ① 무가

## Understanding the Cultural archetypes, and Genesis, Myth and Hanul | *English Script*

### The First Session | Introduction

Hello, I'm Prof. Lee Jeong Jae, the lecturer of 'The Archetype of Korean culture'. Today, in the first week of this lecture, we're going to learn about the creation myth of Korea, as well as a concept called Hanul-nim. As we are going to take a look at the whole picture of Korean culture, it may take a long time to do so. Therefore, instead of covering everything about it, I'd like to focus on the more important aspects that seem to form the basis of Korean culture, though it might not be easy. So, I will try my best to make it interesting and easy to understand.

The lectures in the first week aim to gain an understanding about what the Korean cultural archetype pertains to, and how we define it. Then, we will delve into the creation myth and heroic myths of Korea. We will establish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myths logically. In addition, we will examine how the prototype of the Korean culture has continued to exist till today, and what it is. Therefore, this lecture will consist of these topics.

## The Second Session | Understanding Cultural archetypes

What is the archetype of culture? It is an approach as well as a method of classification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something. The dictionary illustrates the meaning of 'archetype', as follows: It is a foundation from which many similar things are created. Such foundation is the archetype. In other words, it is the groundwork of a picture, or a basic material of goods such as clothes or anything else. We also can think of the theory of evolution to find the prototype of creature as another example. When it comes to human beings, it is widely believed that mankind has evolved from apes. However, it seems not very clear if these things can be considered as the archetypes. Taking the academic view, archetype is related to psychological unconsciousness and structuralism in literature. It is also concerned with linguistic systems.

Thus, the culture archetype can be understood as the original form of said culture, and the administration of--or subconscious response--of a human race. To put it differently, we may define it as, an embodied tendency or consistency to think latent in all mankind. Therefore, we can approach it through the following method. History and traditional culture can be specified into religious and cultural history and the history of cultural thought. They can be further classified according to themes, genre, time, philosophy, and so on. For instance, they may be sorted out by different themes, such as politics, socio-culturalism, and art. If classified by genre, there are many areas such as folk games and folk art. Folk art is further divided into music and art. Music, for example, can be further divided into a variety of kinds, such as court music, Buddhist music, and so on. Art can be also classified in this way. As another example, Korean traditional philosophies can be classified into Shamanism, Confucianism, Buddhism, Zen, and so on. For literature, it can be sorted into legend or folktale and classical literature genres. Classical literature may be categorized as either literature written in pure Korean or literature written in Chinese. Then these can continue to be categorized into various branches.

However, this sort of classification may still be somewhat ambiguous. Therefore, another alternative is categorizing them by time period. Then the outcomes are, for example, literature in Gojoseon, literature in Three Kingdoms (the three nations-Goguryeo, Baekje, and Silla), Goryeo, Joseon, and so on. Ideologies can also be divided into Animism, Manism, Shamanism, Buddhism, Confucianism, Taoism, etc. What is the best classification option? It is not always so easy to determine.

One of the examples for classification is found in 'munwhacontents.com'. This website shows how people have used cultural archetype in the past. In the site,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suggests a method to classify the cultural archetype. The site categorizes the contents of the library by themes, time period, textbook uses, multimedia, contents listed in UNESCO. You may take a look closely at the website for

yourselves as I wrote the URL down. We don't have enough time to visit the site together during class time.

Now, let me divide these categorizations into more specific categories. As for the thematic archetype, there are many themes such as politics, economics, occupations, religion, characters, literature, paintings, art craft, music, military, diplomacy, transportation, astronomical feng-shui, ritual, games, banquet, etc. Also, if categorized by era, as aforementioned, there are the diachronic era, ancient times, Goryeo Dynasty, Joseon Dynasty, and modern times. There are also archetypes adopted by different textbooks of middle and high schools, which introduce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Such categorizations are being used by the 'Korean Creative Content Agency,' a national organization, as Korean cultural archetypes.

However, there are many limitations. It is rather discursive because the categorizations center more on cultural content, not on the cultural archetype. Since, generally speaking, the cultural content is expected to be used by the masses, such content is not deeply analyzed. Moreover, lacking a sufficient academic approach, the classification can be hardly viewed as an authentic one. It is an archetype void of generality, conformity, unity, and so on. Then, how do we need to rebuild the concept of it?

Here, I want to make a concept that consists of the following elements, particularly stressing the aspect of wholeness and utility of the culture. I divided it into three parts according to three aspects: time period, space, and culture. For the time period, it is the chronicle development of culture of Old Joseon and culture after The Neolithic Age. As for the special context, it is the development of culture of each area in Korea. As for cultural context, it is the development of philosophy, themes, and genres. Consolidating all these, we can make a concept of the archetype that includes a time period, a place, and culture. However, to prove the archetype's authenticity, the real cultural proofs and examples need to be presented. Nevertheless, the examples have experienced many changes and variations throughout the history, so we might need an in-depth analysis. I will present the examples as simply as possible.

Let me give you more specific examples for your better understanding. Let's say, there is a house. What is the archetype of the house? Well, it won't be easy to get an idea. As mentioned earlier, if we may sort things according to time period, place, and culture. If sorting by time period, for example, houses have evolved by changing their form over time, such as from a cave, to a dugout, a thatched house, shingle-roofed house, a tile-roofed house, a two-story house, an apartment, etc. Now, they have further evolved to be very modern, as seen in green houses, eco-houses, and zero-energy houses. Therefore, we have come to know that the prototype of housing has changed a lot over time. If the archetype of house is sorted out by places, it is related to the weather and terrain. There are houses on mountains, those built over water, and those on the plains. They are all related to the geographical conditions of the region. For example, the houses in Jeju Island in Korea, are built against strong winds and rainstorms. There, people prefer that their houses have a low roof and high

fence so that their houses are protected from wind. Working on the farm with horses or cows, they also need a house that accommodates the animals. These houses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mountains or seashores. This means the layouts of houses vary depending on where they are. For the houses in the plains, they need more spaces for planting. They must have a large yard. Because a large family lives together, they need a living room, hence, the spaces are arranged accordingly. We also can fi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East and West. An extreme example of the difference might be the snow house in Siberia and the dugouts underground. Another variant is the yurt of Mongolia, which enables fast mobility. We may assume that these types of house are closely related to culture as well.

For example, rich people live in tile-roofed houses and the ordinary people, in thatch-roofed house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religious places: a Buddhist temple, a shrine of a shaman, a temple of a village, etc. Also,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a royal's house and others', according to each social level in a hierarchical society. Or there are differences of housing between the rich and those who are not rich. Therefore, how should we cope with such a large number of variants in pursuit of the archetype of housing? What is the archetype of Korean houses? For another example, what is the archetype of cups? Their form must vary depending on the time and place. (It is the same) for either the archetype of a tree--a natural material--or that of human beings. For the case of human beings, they range from *Homo erectus* to *Homo sapiens*. Therefore, defining the archetype does not seem easy. Perhaps it would be impossible to do it. In sum, we should acknowledge that archetype is a concept that has many limitations. Let's narrow down the example of the archetype to the house again--it needs to be equipped with many facilities that protect it from the rain, wind, cold, and many other dangerous factors.

These are the critical factors that determine the archetype. The factors are: the roof, walls and rooms, fence, and the proper spaces. These three types of factors remain the same. They do not vary depending on the time period, location, and cultural context. However, they are form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ime period, location, and cultural context, as mentioned earlier. Therefore, these are the key factors of the cultural archetype. The life of human beings and their civilization has been developed throughout the primitive age, the ancient times, middle ages, etc. Together with the material civilization, the level of thoughts have been developed as well. We cannot separate thoughts from civilization.

This view has been supported by Ken Wilber, an evolutionary psychologist, along with many others. Therefore, it would be the right path to find the cultural archetype by way of the development of thoughts. The development of thoughts are deep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housing: from the caves, dugouts and high officials' authoritative houses to the houses of materialism and pragmatism. Now, it continued to develop to be more modernized: the eco-house, minimal house and green house which well-represent unfancy but full self-awareness in people's lives. The development is closely related to people's way of thinking. In a nutshell, Korean cultural archetype has been develop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ir prototypal thoughts.

## The Third Session | The Story and The Collection of Genesis mythology

*When the sky and the earth were created, Maitreya was born. The sky and the earth were not separated, so Maitreya erected copper pillars at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and separated them. Maitreya made the sky look like a knob on a pot lid. At the time, there were two suns and two moons and Maitreya took one of them off to create a Big Dipper and a South Dipper. And by taking one sun off, he made big stars and small stars: the big stars were in charge of the king and his secretary, and the small stars were in charge of the people's fortune. When Maitreya needed some clothes to wear, he tried to make them, but there was no cloth. So he dug some kudzu in the mountain and made hemp clothes and a peaked hat using the sky and the clouds as a loom. At that time, there was no fire, so he ate raw food. Maitreya thought it was not very good, so he decided to find the foundation of fire and the foundation of water. He grabbed the grass locust, put it on the mold, and slapped its knee, asking if it knew the root of fire and the root of water. It answered, "How does someone like me know that—someone who just eats dew at night, and sunbeams during the day? You'd better ask the question to the grass frog who may have seen it once more than I." Maitreya grabbed the grass frog and hit him in the knee, and the grass frog replied, "How would I—someone who eats dew at night and sunburns during the day—know that? Take the mouse who saw it two or three times before me and ask." When Maitreya caught the mouse and hit it in the knee, the mouse asked what price Maitreya would pay in return for the answer. When Maitreya said that he would let the mouse take all the rice bins in the world, the mouse replied, "The fire broke out when I entered Mount Geumjeong and held a stone in one hand and hit it with a metal stick with the other hand. And there, the foundation of water gushed out of the spring." Thus, Maitreya came to learn about the root of fire and water. When Maitreya prayed while holding up a gold tray in one hand, and a silver tray in the other, the worms fell from the sky. Five fell on the gold tray and five on the silver tray. The human world that Maitreya ruled was peaceful. Then, one day, the Buddha appeared and tried to take away the world of Maitreya. Maitreya said to the Buddha, "It's still my era, not yours." "Maitreya's era is gone," said the Buddha. "I will make my era now." "If you want to take mine, make a bet with me, you dirty, wet Buddha." Maitreya and Buddha wagered in the middle of the East Sea. Maitreya hung a gold string on a gold bottle, and Buddha hung a silver string on a silver bottle. "If my bottle is broken, it will be your era, and if your bottle is broken, your era hasn't come yet." The Buddha's string snapped first. The Buddha surrendered and asked for another bet. This time, the one who froze the Seongcheon River in summer would win. Maitreya performed the ritual for winter solstice, and the Buddha performed the ritual for entering into spring. The Buddha lost again. The Buddha suggested another bet. Lying in the same room, the one who bloomed peony blossoms on his knee first would win the game. The Buddha secretly slept shallowly, and Maitreya*



*slept deeply. Soon a peony blossomed on Maitreya's knee. The Buddha broke the flower without knowing Maitreya and put it in his lap. Maitreya woke up and cursed the Buddha. "You dirty, damp Buddha, with flowers on your lap, they will not be able to bloom for more than ten days and they will not survive more than ten years even when they are planted." Maitreya was tired of the annoyance of the Buddha and decided to give the Buddha time. And he predicted that the years of the Buddha would be the end of the world. In three days, the prophecy of Maitreya came true, and Maitreya left.*

Now, we will cover the various records of creation mythologies. What type of mythology did we look at earlier? I'm not sure if you enjoyed it. I guess you could say it's somewhat generic, but quite fascinating at the same time. But when were these stories recorded, who were they sung by, and what meanings do they have? I will now summarize them for you, but first, let me just tell you that they are very old and academically significant. They are especially valuable for us because they provide insights into the cultural archetype of Korea.

These stories had only been transmitted orally until they were eventually documented. This documentation was relatively recent compared to other historic documentations around the world. For example, the clay writings of Ziggurat, and the Babylonian myths of Mesopotamia. These could be traced back five to six thousand years from now. Homer's "The Iliad," "The Odyssey," and Greek mythologies were all documented 3000 years ago. Homer originally told his stories through ballads for soldiers and the people in the upper class. And he eventually documented these myths as poetry. But in Korea, written text wasn't common for a very long time. Therefore, the documentation of mythologies was very late. However, the long history of oral presentation of these stories have been continued through shamanism. So the myth we just discussed - the creation myth - was actually a song of the shamans that had been passed down orally for generations. But we don't know for sure how long they have been singing this song for. What we do know, however, is that this mythology was first documented in 1920. Does this mean there are still shamans in Korea? Of course. Not only do they exist, but they also still continue the tradition of rituals and performance through songs and dances of the creation myth.

Now, we will briefly discuss the history of mythology documentation in Korea. Korean mythology is large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is the documented mythologies, and the second is the orally transmitted mythologies. Let's look at the orally transmitted mythologies first. As I mentioned earlier, many of the Korean myths were recorded very recently, during the 1920s and 30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So the documentation was done under Japanese influence. Exactly how they were influenced by the Japanese is a long story, but to summarize, Korean scholars were influenced by Japanese scholars, who were influenced by contemporary studies at the time. Next, the documented mythologies were mostly (the nation's) founding mythologies. These are mostly recorded in [Samguksagi] and [Samgukyusa].

Korea was modernized later than Japan, which delayed the import of modern studies

and science. This was because the royal family and officials of Joseon wanted to maintain their dynasty. Due to this decision that was against the flow of the world, Korean history suffered extreme consequences. Its aftereffect is still evident today. I'm talking about the division, tension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We can largely categorize the documentations as: records by the Japanes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records by the Koreans during the Japanese annexation era, and the records completed between 1960s and the 1980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akashi Akiba published two volumes of 『Studies of Joseon Shamanism, which are very significant. Jijun Murayama produced many documents such as [Shamans of Joseon], [Divination and Prophecies of Joseon] and [Pseudo-religions of Joseon]. These were not purely for academic purposes, but were actually research reports for the Japanese General Government of Korea, a Japanese institution that was established to control Joseon. These documents were part of a project that was designed to exterminate Joseon's traditional culture.

Ironically, they have high academic value for us today. Next, we have documentations by Koreans during the Japanese annexation era, by scholars such as Son Jin Tae, Song Suk Ha, Jeong In Seop, Lim Seok Jae and more. In particular, Son Jin Tae has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Korean mythologies and published a book called [The Ritual Songs of Joseon] in 1927. We could refer to these scholars as the first generation of folklore scholars during the early stages of Korea. Most of them have studied contemporary studies abroad in Japan. So, after realizing the importance of shamanic songs and mythologies, they created the first documentation of mythologies. The creation mythology we have previously discussed was also documented then. If it wasn't for these documentations, many of them would have been unfortunately lost. Nevertheless, a lot of them are still lost today. North Korea is inaccessible, and there are no shamans there anymore.

So that's that. After the Korean War ended in the 1950s, numerous academic activities flourished between the 1960s and the 1980s. This is when scholars like Kim Tae Gon, Park Kyung Shin, Lee Doo Hyun, Jang Joo Geun, Kim Young Jin, Jin Seong Ki and Hyun Yong Jun emerged. Among them, Kim Tae Gon compiled the most records. He disposed of all of his assets, roamed around the entire country with a large recorder, and published 5 volumes of , "Korean Shamanic Myths(한국 무속 신화)" in the 1980s. Other publications include [Studies on Korean Shamanism], [Studies on Korean Shamanic Mythologies] and many more. A lot of my references will be from him, Kim Tae Gon. The scholars from this era have purely national perspectives. Their works are distinctive in their emphasis on national identity and originality. There are actually a few English translations, but there aren't many. The most famous one is [Folktales from Korea] by Jung In Seop, published in 1952. There is also a shaman myth documented by Choi Won Oh. [An Illustrated Guide to Korean Mythology] was published in 2008, and is currently available on Amazon. So these were the examples.

## The Forth Session | Genesis mythology and Shamanism, and the Narrative and Meaning of Genesis mythology

Now, we will look at the types of creation mythologies, and the types of shamanism. As I've mentioned, the categorization of the types of creation mythologies is based on 『Studies on Korean Shamanic Mythologies(한국의 무속신화 연구)』 by Kim Tae Gon's. First is the mythology about the division of heaven and earth, followed by the creation mythologies, and so on. The Chogamje of Jeju Island is a mythology about the division of heaven and earth. This is from the first volume of 『Studies of Joseon Shamanism』 by Takashi Akiba, which I mentioned earlier. Also, in the 『The Ritual Songs of Joseon(조선 신가 유편)』 by Son Jin Tae, which was mentioned earlier, is the creation mythology of Hamgyeong-do Province. The creation mythology we looked at earlier is this second one, from Hamgyeong-do Province. This creation myth is from Hamgyeong-do Province, which is in North Korea. It is actually at the Northeastern-most end of North Korea, where there are no longer shamans to recite the stories. The tradition is lost.

On the other hand, Chogamje of Jeju Island is still being sung in Jeju. The second creation mythology of Hamgyeong-do Province we looked at earlier, was recorded and presented in 1927 by Son Jin Tae after he came back from studying in Japan. The first mythology, the Chogamje of Jeju, was recorded by Japanese scholars. This is what I told you earlier.

These are the two most famous versions, but there are many versions that have similar narratives and progressions. There are many versions. Around 20 in total. As you know, these mythologies were all originally sung by shamans during rituals. So they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There are recorded and unrecorded founding mythologies, and by looking at the first records in the 1920s and 30s, these mythologies were not recorded, which is why they have so much value as data. In the founding mythologies, there are no explanations about the creation of the world such as how clothing, water and fire came to be.

In this creation mythology, however, such origins are explained very well. Therefore, we can say that this is an excellent representation of the original Korean cultural archetype. Because these mythologies have been passed down orally by shamans for multiple generations,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they have exceptional academic value. Of course, there are many more songs sung by shamans that we haven't covered. Some of them will be provided to you as reading material. Kim Tae Gon, in his publication [Studies on Korean Shamanism], classified the shamanic songs by their characteristics. He explains in detail how to categorize the vast variations of 316 shamanic songs systematically, because there are so many.

It starts with the Bujeong (uncleanliness) category, and ends with the Songshin(returning gods) category, which is the 10th category. The Bujeong category includes songs about purifying the area of the ritual, such as Bujeong, Bujeong-geori,

and Bujeong-puri. Bujeong-geori and Bujeong-puri are the names for each of the songs. Then there is the Chungshin category, which translates to “inviting god.” This category includes songs such as Gamang-gut, Shinmaji, Hajung and more. Look carefully here. The New Year ritual of Jeju Island happens in this order. Chogamje, Hajung, Segyeongbonpuri, Aekmakgo, Samanibonpuri, in that order, and more. Remember this Chogamje from earlier? This Chogamje is the creation mythology. The point I’m trying to make is that the creation mythology is sung in the Chungshin category. Sorry, I meant the Bujeong category. Bujeong category is sung first, and that’s when the creation mythology is sung. Next are the rituals in the Josang(ancestral) category. Gija(blessings for descendants) category. This one is about giving birth to many healthy children. Children were especially important back in those days. So there are a lot of songs and rituals related to this. Then the Sumyeong(longevity) category. This is about having a lengthy life, which includes 'Chilseong-gut' and 'Jangja-puri'. Chobok(wishing for blessing) category. Songs here are wishes for luck regarding wealth, successful farming, the well-being of your descendants and such. The rituals of the Jeaeak-suho(prevention against bad luck) category. There are many rituals in this category, which prevents diseases, bad luck in the house, family disputes, and other bad things. These include Gunwoong-gut, Seonang-gut and Changbu-gut, but I will cover them another time in more detail when we discuss shamanism. Then the Chibyeong(curing disease) category. This is regarding diseases. In this category, there is a very special ritual called Sonnim-gut or Hogu-gut. Smallpox used to be a common disease back in the day. Before there were smallpox injections, many people actually died from smallpox. Even if you survived, you would still be pockmarked. We rarely see pockmarked people these days, but I still remember seeing a lot of them when I was young. Next, we have the Myeongbu(the world of the dead) category. These are rituals dealing with the afterlife. Then there’s the Songshin(sending gods) category. Because the gods were invited earlier, this ritual serves to send them back. These are how the rituals are classified into 10 categories. So now we know that the creation mythology introduced earlier was a song sung at the very beginning of shamanic rituals.

The rituals by the shamans are not secular but sacred, so the scene is initially set by singing songs about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 In other words, setting the scene of the ritual as the perfect state of the world; to when heaven and earth were first created, and the origins of humans, gods, clothes, fire, water and food are sacredly prepared, and then bringing in human problems one by one, is what the shaman’s ritual - the “gut” - is all about. So, what specific meanings does the creation mythology have? Let us look at the key points. We will start by looking at the outline of the mythology that was narrated earlier, and discuss its contents and ideologies. If we look at the outline first, this is a creation mythology that was sung in Hamgyeong-do Province, which is currently under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 and is therefore no longer continued as a tradition. However, there are some similar ones in South Korea in the regions of Chungcheong-do Province, Gangwon-do Province and Jeju Island. At the beginning, Mireuk(Maitreya)’s creation of the world is explained. Mireuk built copper

pillars to separate the sky and the earth. ‘Wonbangsago’ is in parenthesis, which means that the circle represents the sky, and the square represents the land. So now you know what the circle and the square mean. Also, there used to be two moons and two suns, but Mireuk, the creator of the world, made the Great Dipper and the South Dipper with a moon, and humans with a sun. The big star represents the king and the secretaries, and the small star represents the people. There is also a story about clothing, how clothing was made. And there is another story about the origins of water and fire, which involves a grasshopper, a frog, and a mouse. Eventually, the answer was revealed after the mouse was given access to the grain warehouse. Basically, fire was made by colliding the brisket and flint of Geumjeong-san mountain, and water from the spring of Soha-san mountain. There are also implications about evolution. The grasshopper represents the arthropods, the frog the amphibians, and finally the mouse the mammals, in that evolutionary order. Then, the origins of humans are explained. There was a silver tray and a gold tray and 5 insects were dropped on each tray. The insects on the gold tray became men, and those on the silver tray became women. Finally, Mireuk achieved peace.

The story does not end here. After Mireuk had achieved a peaceful world, Seokga(Buddha) made an appearance. He wanted to take over the world. Mireuk initially refused, but Seokga offered him three bets, which Mireuk eventually accepted. The first bet was to tie the strongest rope on the East Sea, and Mireuk’s golden rope was strong enough to give him the win. Seokga’s silver rope broke, and he lost. In the second bet, Maitreya(Mireuk) and Buddha use the Dongji fans and Ipchun fans respectively, for freezing the Seong-Cheon River. It means that the Dongji blew the winter wind. In Ipchun, spring wind blew and Buddha lost. And the third bet was to bloom peony flowers on one's knees. Those bets developed in a very unfamiliar way, but in fact, they can be understood as having a deep meaning. Anyway, even though Maitreya bloomed peony flowers on his third knee, Buddha swapped it while he was asleep, and Maitreya lost again. In the meantime, Maitreya criticized the cowardly behavior and sang the song of the curse. As a result, as Maitreya cursed, the world became full of all kinds of crime and bad news like the kind that can be seen today. This is how the myth ended, and it divided into the world and the underworld. Buddha supervises the world and Maitreya supervises the underworld. Rather than calling it the underworld here, it can be seen as a distinction between reality and the unreal or surreal.

Now, these myths are actually very similar to the Chinese Pangu myth, the Mongolian creation myth, and the story of rats of the Sidamo tribe in Africa. But you can take look at such a similar story as a reference and check it out--the Mongolian creation myth, especially,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Korean creation myth. Maitreya and Buddha appear in there as well. In addition, it took over the world by winning a bet, although the opposite also occurred. so you can see that there is a very deep cultural and mythical correlation.

## The Fifth Session | Expansion and Cultural archetypes of Genesis Mythology

Now, we have briefly looked at the narrative of creation and any meaning that can be a point in the narrative, so next we will look at it in more detail. The topic will be the summary and interpretation of the creation myth. First of all, the protagonist who creates the world appeared as Maitreya. In other words, the creator, Maitreya can be said to be God here. God created the world. But Maitreya is a Buddhist term, right? Then, how does he become a God? In a different version of creation mythology, such as Cheonjiwangbonpuri, Chogamjae in Jeju Island, the main character appears as king of heaven and earth or king of heaven. That corresponds to Haneul-nim. So, even here, it can be said that Maitreya is Haneul-nim, and an academic basis has already been sufficiently established. Therefore, Maitreya the creator is the Haneul-nim.

Then, a cultural hero appears. So, the myth shows that it has developed from a natural state to a state of civilization. There is a cultural hero element that deals with the problem of making clothes and the problem of water and fire for eating. The next important thing is the birth of humans, which includes the gold tray, silver tray, and five insects. What does this mean? There may be various interpretations, but in general, these interpretations are being made. The sun and moon represent Yin and Yang. And a tray is round and it means it is a seed that is the source and the uterus. And the circular tray symbolizes Mugeuk because the insect falls into empty space and becomes a human. We can interpret it like this. Why five of those animals? It symbolizes the Five Elements. Therefor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is human birth means humans were born according to Yin-Yang and the Five-Elements. You can understand it like a universal and general interpretation. Then the organizer of the world changes. Buddha is in charge of the world and Maitreya is in charge of the underworld. From Maitreya's point of view, it would be unfair. It would be a very peaceful world if Maitreya remained in charge of the world, but Buddha appeared and asked him to make a bet, and he even deceived Maitreya to drive him out. In the meantime, this was reality and unreality. This unreality can be said to be the underworld or surreal world.

In other words, it also can distinguish between a material world and a mental world.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Buddha's trickery is a typical type of trickery that can be seen in myths around the world. He used his these types of tricks to benefit the community. So, it's not a trick solely for himself or for an individual, but a trick for the betterment of the community. Therefore, you can understand it as an aspect of wisdom rather than a trick. So I think it should be interpreted as a community hero story. That means, it can be interpreted as suggesting that the real world and the surreal world should be joined together. The next thing that is covered will be the idea of Samsu. There are three bets: Joining the sky rope, freezing, and blooming flowers. This has many meanings, and it also has the meanings of Mugeuk(Nonbeing Ultimate), Taegeuk(Great Ultimate), and Hwangguek(Emperor Ultimate), or you can also see in a

different way, which are the world of the origin, the world of creation, and the world of life that operates and utilizes it. So, the idea of Samsu appears everywhere in Korean mythology, and it also appears here. Then, as a curse by Maitreya to punish someone's deception, he said "You will have a hard time. There will be a lot of bandits and bad things will happen." The era of civilization from the hunting nomadic era to the agricultural era. I am referring to the fact that the times of this civilization are a little dizzy and confused. But certainly, in the civilization era, it presents boundaries for certain greed to prevail. It can be seen as it pointed out the aspect of civilization and the imbalance caused by civilization. What I call an imbalance here must balance the real world and the surreal world which I've mentioned earlier. It has to balance your physical and mental things. That's how to run a proper life, a Hwanggeuk life in Mugeuk, Taegeuk, and Hwanggeuk. Like thi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myth is now causing us revelation.

Lastly, the transition from the peaceful era as the world of Yin and Yang to the chaotic era. Also, the basis of chaos in the world is from eating raw food to cooked food, hunting nomads to agriculture, and nature to culture, which all forced the balance between the real world and the surreal world. If you want to see more in-depth information about creation, then it would be good to refer to the data below. Jongsung Park's "Korean Creation Epic Study(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published in 1999. It would be nice to take a look at Heon-seon Kim's "Korean Creation Myth(한국의 창세신화)". These can be representative from various references. So, let's continue to look at how this creation myth expands as a cultural archetype. First, if you look at the core elements, Maitreya means the creator, God, and heaven. Nature, the universe, and human are of the same origin. Yes, it divided the sun and the moon to make humans. So, this is the spirit of the unification with God. The universe and human are said to be of the same origin. And another thing that was pointed out is the idea of Yin-Yang and Five-Elements. And we can take the idea of Samsu. It will be Cheonji-in, Wonbanggak, Mugeuk, Taegeuk, and Hwanggeuk. As I mentioned earlier, in other creation myths in Korea, for example, in the Cheonjiwangbonpuri in Jeju Island, the main character doesn't appear as Maitreya, but as Cheonjiwang as Haneulnim or Hananim(God). And how etymology has changed from Hananim is, Han', Han means 'one' or 'big, great'. There is 'Nim(honorific suffix)' afterward. Therefore, Han-nim. This became Hanna-nim, Hana-nim, or Hanul-nim, Haneu-nim. So this is one, the only. There is only one thing. It's talking about some truth. It is about the rules of the universe or the truth of the universe. It is large, and it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sky. So, you can understand that it has a complex meaning of 'one', 'sky', and 'han'. Such things have spread to be used today in words, such as Hana-nim(god), Hanbaegeom(the founder of Korea), Haneu-nim(god), and Hangaundae(middle).

Overall, the creation myth began with the creation of God, and the world continued to develop from this, As it became civilized, it became a chaotic era, so don't be immersed in it, don't forget the fundamental universe, the fundamental nature. This myth has a deep meaning of living in a balance between reality and surrealism. The

fundamental element can be extracted like this.

As we have seen earlier, there is the idea of Hana-nim, Cheonjiin Samsu (the Three-God Thought of Heaven, Earth, and Human Being), and Yin-Yang and Five-Elements. For reference, the god of creation can be said to be the Middle Eas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only God in the Levant region and the idea of one and only God. Rather, he is a god of pantheistic character, and can be equivalent to the only being, Cheonji, and heaven. It implies the image of a huge and great grandfather. For your information, when translating Yahweh, the only God from the Bible in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in Korean, the term Hana-nim which is widely known has been used. It is quite different from translations from neighbor countries. For example, in China, it is called Sangje which is 'Xiangti'. In Japan, Kami or God. This is how it was translated and used, but in Korea, such terms are not used, but Hana-nim, which is the most similar interpretation, has been used. So, that which is called Hana-nim is not originally the God in Christianity, but originally the God as a creator, as we saw in the Creation myth in Korea. And you can understand that Hana-nim has a slightly different appearance from Christian God. The core of the creation myth is that 'Hana' and 'Nim' are attached, and it can be confirmed again that it has developed into Yin-Yang, Five-Elements and Cheonjiin. To interpret it using modern terms, the myth suggests that life should be lived according to its meaning, that is,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divine nature of the universe. I think this can be used as an axis of the cultural archetype.

Then, can you see the use of the idea in reality in Korea? Of course, you can see a lot of them. I have given some examples below. For example, in the case of Hana-nim and Cheonjiin, the celebration of heaven is still held at a specific time nationally. They hold large and regular rituals at the national and community levels. I wrote down the Youtube URL for the video called 'What is a ritual for heavenly God'. I think you can fully understand it if you copy the link and watch it.

The other one is Hanyang, Seoul. The fortress is surrounded by a rampart in Seoul, and there are several castle gates there. Among them, the most representative are the Sadaemun which are in the east, west, north, south and Bosingak Pavilion at the center. Those are Yin, Ui, Yae, Ji, and Sin, which are the principles of Yin-Yang and Five-Elements. The gates of Hanyang were designed according to the five elements. So, we can confirm that the thinking system in the creation myth has been used in the Joseon Dynasty and today as well. And there is a study that says that the creation of Hangeul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Yin-Yang and Five-Elements. And also the Korean national flag is a product of these concepts. And such as Obang-dance, which is based on the five cardinal colors and Five-Elements, we can check that there are numerous cultural archetypes for Yin-Yang and Five-Elements. Next, I wrote down the URL for reference and reading materials about exploring Hanyang fortress, the creation of Hangeul and Ohbang-shin. If you go and check it out, I think you will be able to see how the match is working between the creation myth and the cultural archetype.



Let's wrap up the first week 'Creation Myth'. I will finish by emphasizing the meaning and example of pantheistic God once again. Previously, we looked at the cultural archetype of Creation, and its expansion. We have confirmed this in a cultural way. The setting of pantheistic God leads to the idea formations of Cheonjiin and Yin-Yang and Five-Elements. The meaning of Hana-nim is unity and it settles in traditional cultures afterwards, such as Sinmyeongpuri(cheerful performance), Cheonmyeong(mandate of heaven), and ilsim(like minded). For example, it can be found in the Gut(ritual) where shamans perform exorcism or farmers' music, epic songs, mask dances, etc. For example, things such as Bujeong-Gut and Chogamje, which started in the beginning of the Korean Shamanic ritual, still exist today. Then, showing courtesy to heaven and going through rituals such as Talchum(a mask dance) and Dongje (Worship to a Village god). We will continue to look at these things in next class. As an extension of that, even now, when companies hold an opening ceremony, they perform rituals and those are confirmed everywhere in Korea. Even when holding a festival at a university, Opening door-Gut is performed when Daedongje is held, and this is part of the cultural archetype.

This is a summary of this lesson. Unification with God means that nature, the universe, or humans are not fundamentally different. We saw that it was divided into moon and sun. In other words, unification with god means the non-dimensional and natural attitude of unity, which is natural unity and Cheonjiin.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the creation myth was confirmed as a cultural archetype that revealed the continuation of daily life following the unity with the divine universe. For any theoretical in-depth learning on this, you can look at 「Arche-Pattern theory and Trance theory(2018)」 by Lee Jeong Jae. Now it is the end of week 1.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 文化原型的理解，创世神话和上帝 | *Chinese Script*

### 第一节课 | 导入

大家好，我是《韩国文化原型》的任课老师李丁宰今天是第一周，主要学习文化原型的定义、创世神话和한올님의相关内容首先介绍一下课程内容，我们将用十周时间学习韩国传统文化内容非常多所以只能挑重点讲解文化原型相关内容，可能会有些难度不过我会尽量讲得简单生动一些

第一周的学习目标是文化原型的定义韩国创世神话和英雄神话以及这些神话内涵的理论性阐释追溯神话原型从古至今的演变过程探索文化原型的现代传承这就是本周的主要内容



## 第二节课 | 文化原型的理解

文化原型的理解，什么是文化原型呢？我们来看一下相关的分析和分类方法“原型”一词在韩国国语辞典中的释义如下相似或同类事物的根源根源会衍生出不同的分支，而这个根源就是原型即事物的根本，比如制作衣服或其他物品的根本我们可以从进化论角度追溯现存生物的根源以人类为例，人类的根源是什么呢？我们都知道是类人猿这样定义原型的话，难免有些模糊从学术角度来讲，原型就是archetype，比如心理学中的无意识结构主义中的文学结构和语言结构也有一定关系

culture archetype就是指文化原本的存在形式，即某一民族或人种的无意识的精神反应人类共同意识产生的所有无意识中潜在的倾向性或一惯性的具象表现，就是原型我们可以通过以下几种路径进行分析从历史和传统文化的传承来看，可以分为宗教文化史、文化思想史等又可以按照主题、体裁、时期和思想进行细分比如，按照主题可以细分为政治、经济、社会文化、艺术等按照体裁细分为民俗游戏和民俗艺术，民俗艺术包括音乐音乐又包括雅乐、俗乐、佛乐等传统思想按照体裁可以细分为萨满教、儒教、佛教、仙教、道教文学可以细分为口碑文学和古典文学古典文学又可以分为国语文学和汉文文学，分类非常详细

不止如此按时期分，古典文学还可以划分为古朝鲜时代文学、三国时代(高句丽、百济、新罗)文学高丽文学、李氏朝鲜文学等按照思想可以划分为万物有灵论、超自然力量说、萨满教、佛教、儒教、道教等哪种分类方法更为有效呢？很难做出判断

大家可以登陆网站culturecontent.com查看相关实例韩国文化振兴院提出了一种文化原型的分类方法文化原型图书馆按照主题、时期、教材、多媒体和世界文化遗产将文化原型分为五类

上课时间不方便访问网站，大家可以根据网址自己搜索查看主题、时代、教材还可以进行细分主题类文化原型包括政治、经济、生计职业、宗教、信仰、人物、文学衣食住行、绘画、美术工艺、音乐、军事外交、交通通讯、地理天文、风水、礼仪、游戏、宴会等多种主题如前所述，按时代划分，文化原型可分为古代、高丽时代、朝鲜时代、近代等还能按照教材进行分类，韩国初高中教材中的传统文化素材韩国文化振兴院就是按照以上分类对文化原型的概念进行界定

这样的分类是存在一定局限性的它不是针对文化原型，而是以文化为对象，范围过大这样的分类主要是为了便于公众使用，因此缺乏深度同时也缺乏学术性观照，并非真正的原型缺乏对于韩国文化原型普遍性、一致性和统一性的概括那么文化原型究竟该怎么界定呢？

刚才我们从整体概念和实用角度进行了解析，下面再来看看其他要素从时间、空间和文化的脉络来考察时间上从红山文化和新时期之后进行历史划分空间上对朝鲜半岛内部各地区的文化进行划分文化上根据思想、主题、体裁来划分综上所述，我们所说的文化原型包括时间、空间和文化三方面这些原型一直延续到现在，需要提供文化实例进行佐证这些实例随着历史不断演变，需要进行深入分析我们来看一些简单易懂的材料

为了便于大家理解，我来举几个例子首先就以“家”为例吧家的原型是什么呢？很难直接回答吧按照前面提到的时间、空间、文化三分法，可以这么进行解析从时间演变来看，家包括洞穴、窝棚、茅草屋、木瓦房、砖瓦房双层楼房、大厦、公寓等还有现代的田园式住宅、环保型住宅、零能耗住宅等多种形态可见，家的原型会随着时间推移而不断变化而在不同空间中，家的原型还会受到气候和地形的影响在山区、海边、平原地区，家的原型各不相同例如，在韩国济州岛，为了抵挡凛冽的海风和多雨天气当地居民喜欢建造低矮的房屋和院墙，以达到防风效果而在平原地区，农耕生活需要马、牛等家畜，需要合宿型住宅同样的道理，山区和海边的住宅也会不同所以，在不同空间，家会出现不同的形态另外，平原地

区需要更多的空间进行农耕和休闲娱乐所以会出现宽阔的庭院众多家庭成员共同生活，所以需要檐廊东西方也会有差异，例如西伯利亚的雪屋和地下洞窟而蒙古族等游牧民族就需要便于移动的蒙古包这也和文化息息相关

比如有钱人家的砖瓦房和老百姓的茅草屋佛教的寺院，巫女的神堂，农村的祭堂和祠堂等宗教性场所，古代君王的不同宫殿现代不同收入阶层居住不同的空间既然家的原型存在许多变量，那该怎么界定呢？家的原型究竟是什么？再举一个例子，杯子的原型是什么呢？在不同的时间和空间中，杯子有无数种变化形态大自然中树木的原型或人类的原型人类的原型是直立人，尼安德特人和智人由此可见，原型的界定并非易事甚至可以说是一件不可能的事情各种界定总会或多或少有局限性还是以家为例，家是人们用来遮风挡雨、规避危险的建筑

这是决定其原型的根本要素包括屋顶、墙、房间、篱笆和恰当的空间基本要素是相同的即使时间、空间、文化不同，也不会有变化但是具体形式会随着时空和文化的不同而变化因此，文化原型的决定因素是历史、地域和文化人类文明经历了太初时代、原始时代、古代、中世纪，一直延续到现代随着文明的进步，人类的衣食住行也在不断进步也就是说，文明和思想史密不可分

其中代表性学说就是Ken Wilber的进化心理学因此，从思想根源入手，追溯其文化历程的来龙去脉就是探寻文化原型的正确方法从原初的洞穴到王公贵族的权威，再到近代的物质主义和实用主义一直到后现代主义中满足个人微小心愿的环保型住宅或者满足简约生活的极简型住宅还有田园式住宅，都跟人类的思考方式有着千丝万缕的联系所以，学习韩国文化原型的过程，就是探索韩国思想原型发展变化的过程

### 第三节课 | 创世神话故事，创世神话的采录

太初时期，弥勒降生天地混沌，弥勒立下四根铜柱，天地始开苍穹犹如锅盖一般隆起彼时日月皆有两轮弥勒取一轮明月化为北斗七星和南斗七星取一轮太阳化为大小星斗大星斗承载君王大臣运势，小星斗承载百姓运势弥勒欲穿衣，奈何无原料取山中葛藤，以天空为机杼，白云为梭，织出麻衣高帽彼时无火，只能生食弥勒决意探寻水火之根本寻来飞蝗，敲其膝盖，拷问可知水火根本答曰“夜食甘露，日浴阳光，如何能知？弗若问蛙”遂寻来青蛙，敲其膝盖拷问答曰“夜食甘露，日浴阳光，如何能知？弗若问鼠”遂寻来老鼠，敲其膝盖拷问，鼠曰“以何为代价？”弥勒许之以天下粮仓，鼠始告之“入金鼎山，白石铁片相撞即可得火，入小夏山寻山泉，自有水之根源”弥勒方知水火之根源弥勒一手执金盘，一手执银盘，向上天祈愿自天降下金银虫各五只弥勒治世，天下太平然释迦忽现，欲夺弥勒天下弥勒曰“如今乃我治世，汝之时代尚未降临”释迦曰“汝之时代已过，吾欲开启新时代”弥勒曰“齷齪之徒，欲夺天下，需与我打赌”弥勒与释迦遂赌于东海之上弥勒系一金线于金瓶，释迦系一银线于银瓶弥勒曰“倘若吾线先断，汝胜；倘若汝线先断，为时尚早矣”释迦之银线先断释迦不服，要求重赌能令盛夏之城川江结冰者得胜弥勒行冬至祭祀，释迦行立春祭祀释迦再败释迦不服，请三战躺卧膝上先开出牡丹者胜释迦佯睡，弥勒真眠弥勒膝上牡丹立现释迦趁弥勒熟睡，将牡丹移于己膝弥勒醒后，下咒于释迦“齷齪之徒，吾之花移于汝膝，花无十日好，落地无十年”弥勒不堪烦扰，遂将世间让与释迦预言末世将至四天后预言成真，弥勒隐遁

这就是后世采录的韩国创世神话这则神话属于哪一类神话呢？很有趣吧？浅显易懂，又带有神秘色彩这则故事何时发生？何时被记录？是谁传唱的？又有何深意呢？我们一起来看一下先说结论，这则历史悠久的神话拥有极高的学术价值通过这则神话可以窥探韩国文化的原型

首先，这篇口传神话是什么时候被记录下来呢记录时间非常晚近，这和其他国家的神话记录不太一样例如金字塔铭文和美索不达米亚地区的巴比伦神话可以追溯到五六千年前荷马的伊利亚特和奥德赛，希腊神话都是在三千年前被记录下来的游吟诗人荷马出于商业目的为军人和上流阶层唱歌用诗歌记录神话，而韩国在很长一段历史中是没有文字的所以关于神话的文字记载也比较晚不过，韩国拥有悠久的传唱传统，这一传统的传承媒介就是萨满教刚才我们看到的创世神话，就是一代代萨满巫师口口相传下来的歌曲只是萨满巫师从何时开始传唱这首歌曲，现在无从得知我们能够确认的信息是，这则神话是在1920年代被记录下来的现在韩国还有萨满巫师吗？回答是肯定的而且那些记录天地创造的歌曲和舞蹈，也通过祭祀仪式保留至今

下面我们来看看韩国的神话采录历史韩国神话大致可分为两类包括文献记录神话和口传神话口传神话大部分是在上世纪二三十年代，也就是日帝强占时期在殖民宗主国日本的影响下采录的这段历史说来话长当时韩国学者受到日本学者的影响，和他们共同完成了采录工作而文献记录神话则是以建国神话为主主要记载于《三国史记》和《三国遗事》之中

韩国近代化晚于日本，近代科学的开放也相对较晚因为李氏朝鲜的王族和官吏想要维持君主制这与历史潮流相违背，导致朝鲜半岛经历了悲惨的历史影响一直延续到现在导致了现在朝鲜半岛南北分裂对峙的紧张局面口传神话分为三类，包括日帝强占期日本人采录的神话韩日合并时期朝鲜人采录的神话以及上世纪60-80年代采录的神话日帝时期日本学者秋叶隆编写了研究价值极高的《朝鲜巫俗研究(上下卷)》村山智顺编写了《朝鲜巫觋》《朝鲜占卜和预言》《朝鲜的类宗教》这些著作并不是纯学术著作，而是当时日本在殖民地朝鲜设立的朝鲜总督府为了实行民族抹杀政策，对朝鲜传统文化进行调查的报告

不过现在仍然具有重要的学术价值第二类是韩日合并时期朝鲜学者采录的神话，包括孙晋泰、宋锡

夏、郑寅燮、任哲宰等其中孙晋泰先生在1927年编写的《朝鲜神歌遗篇》是研究韩国神话的重要著作这些学者是韩国第一代民俗学家他们大多留学日本，学习近代学术研究方法他们认为巫歌和神话尤为重要，对其进行采录完成了韩国最早的神话采录工作刚才大家看到的创世神话也是这个时期采录完成的如果没有这些学者的努力，就会丢失更多的资料现在就有许多资料都找不到了现在的朝鲜是没有萨满巫师的

言归正传1950年代朝鲜战争结束之后，60-80年代韩国学术迅速发展这一时期涌现出了等众多民俗学者，包括金泰坤、朴庆新、李斗贤、金英镇、玄容骏其中金泰坤先生是其中翘楚这些学者自己出资带着大型录音机，遍访韩国全境，编辑出版了《韩国巫俗神话》五卷本还出版了《韩国巫俗研究》《韩国巫俗神话研究》等著作我们上课的很多资料都是出自金泰坤先生的著作这一时期的韩国学者都是秉持着传统的国学观点强调独立性和自主性是他们的研究特征另外还有基本值得参考的英文著作最具代表性的是郑寅燮先生1952年出版的《Folktales from Korea》还有崔元伍关于巫俗神话的著作《An illustrated Guide to Korean Mythology》，2008年出版，在亚马逊可以买到大家可以参考以上资料

## 第四节课 | 创世神话与巫歌，创世神话的叙事与意义

下面我们来学习创世神话的种类和巫歌的种类根据金泰坤《韩国的巫俗神话研究》中的标准创世神话分为天地开辟神话和创世神话天地开辟神话主要指济州道的初感祭在日本学者秋叶隆的著作《朝鲜巫俗研究》上卷中有记载孙晋泰的著作《朝鲜神歌遗篇》中有关于创世歌的记载刚才大家看到的神话属于咸镜道的创世神话咸镜道在朝鲜境内位于朝鲜东北部，那里没有巫师，巫歌自然也就不存在了并未传承下来

而济州道的初感祭一直保留至今咸镜道的创世歌是孙晋泰1927年从日本留学回国后采风记录下来的而济州道的初感祭是由日本学者记录下来的这些都已经讲过了

这两个是代表版本，其他异本和它们差别不大异本数量非常多共有20部大家都知道，这些神话是萨满巫师在举行祭祀仪式时唱的祭歌特征非常明显建国神话大多有文字记载，而一直没有文字记载的创世神话直到上世纪二三十年代才被记载下来因此具有重要的文献价值建国神话中并不包括创世、造人、取火、制衣等内容

创世神话中则解释了这些起源因此，创世神话可以看做是蕴含韩国文化原型的典型需要再次强调一下，这些神话由巫师们代代相传，历史久远具有重要的学术价值除此之外，巫师传唱的祭歌还有很多在我们的阅读材料中都有金泰坤在《韩国巫俗神话》中将巫歌进行了分类316首巫歌要怎么进行分类呢？金泰坤将它们分为不同的系统

从不净系统到送神系统共十类，不净系统包括净化祭祀空间的不净祭准备祭祀空间的不净坛、阐释不净涵义的不净释义等不净坛和不净释义都是以祭歌形式演唱第二类是请神系统，祈求神的降临包括感应祭、迎神祭、劝神祭等大家注意济州岛的迎新年祭祀就是按照这个顺序进行的包括初感祭、劝神祭、农耕神祭、除厄祭、死神祭等刚才我们提到过初感祭对吧？初感祭中唱的巫歌就是创世神话创世神话是在请神系统不对，是在不净系统唱的祭歌首先进行不净巫祭，这时唱的就是创世神话之后是祭祖系统的巫歌还有祭子系统的巫歌，祈求多子多福，平平安安古时候子嗣非常重要，所以会有很多相关的巫歌和祭礼接下来是祈求长寿的长寿系统，包括七星祭、长子祭等还有招福系统，祈求多财多福，年年丰收，子孙昌盛还有除厄守护系统的祭歌，祈求无病无灾，家庭和睦，驱除厄运还有群雄将帅祭、城隍祭、倡夫祭等，我们在下节课介绍萨满教时会详细说明还有治病系统，生病时进行的祭礼其中比较特别的是痘神祭、户口祭古时候很多人会生天花，当时没有疫苗，很多人会患病死去那些痊愈的人，也会留下一脸麻子现在几乎看不到了，但我小时候还看到很多之后是冥府系统，掌管死后世界的祭歌最后是送神系统，刚才提到过请神，这里是把神再送回去以上就是祭歌的十个系统我们前面介绍的创世神话，就是巫师在开始祭祀时唱的祭歌

巫师的祭祀是神圣的仪式，需要从太初开天辟地之时唱起天地初开，天神降临，人类诞生，水火始用，衣食始备才形成了神圣完美的太初世界所谓祭祀就是巫师提出人类存在的问题，并一一解开的过程那么创世神话具体有什么涵义呢？一起来看一下核心内容我们一边解读刚才的旁白，一遍解析其中蕴含的意义和思想这首创世歌在咸镜道地区传唱，但是现在的朝鲜主张无神论，所以没有传承下来不过，在忠清道、江原道、济州道等地还有类似的祭歌祭歌中首先说明了弥勒创造世界的过程弥勒立下铜柱，把天地分开括号里的“圆方思维”，“圆”指天是圆的，“方”指大地是方形的由此可以看出天圆地方的思维模式日月各有两轮，弥勒把一个月亮化成了北斗七星和南斗七星把一个太阳化成代表人类运势的大小星星大星星代表君王运势，小星星代表百姓运势还有关于衣服的起源使用水和火的起源，其中出现了蝗虫、青蛙、老鼠等小动物弥勒许诺给老鼠粮食，才得到了水火起源的答案去金腾山用白石和铁片摩擦生火，去小夏山寻找泉水从中可以看出从节肢动物到两栖类动物再到哺乳动物的进化过程后来讲到了人类的诞生弥勒用金盘和银盘接住了上天赐予的虫子，金盘里的虫子变成了男人银盘里的虫子变成了女人由此开

### 后了太平盛世

故事还没结束这时候释迦出场了他妄图主宰世界弥勒不同意，于是两人决定通过打赌决胜负，一共分三局第一局是在东海比试谁的线结实释迦的银瓶线先断了，他输了第一局第二局是看谁能让城川江水结冰，弥勒用冬至扇，释迦用立春扇冬至扇吹的是冷风立春扇吹的是暖风，释迦又输了第三局是比试膝上开牡丹打赌过程有些乏味，但其中的涵义非常深刻第三局比试中，释迦偷走弥勒膝上的牡丹，获得了胜利于是弥勒开始指责释迦的卑鄙行径，并唱起了诅咒歌弥勒的诅咒果真应验了，现在世界充满了犯罪和不好的事情故事到此结束，世界就此分为此岸和彼岸释迦掌管此案世界，弥勒掌握彼岸世界其实这就是现实和非现实、超现实的区别

这和中国盘古神话、蒙古的创世神话、非洲的老鼠神话有很多相似之处大家可以作为参考资料读一读，就会发现蒙古和韩国的创世神话非常相似蒙古创世神话中也有弥勒和释迦他们也通过打赌的方式，决定谁能获得人间的统治权所以两者之间存在文化上的密切关联



## 第五节课 | 创世神话的扩展和文化原型

上节课我们了解创世神话叙事和核心意义，下面进入深化学习阶段对创世神话进行归纳和阐释首先，创世的主人公是弥勒这里的创世主弥勒被称为하나님은하나님이创造了世界弥勒明明是一个佛教用语那하나님은从何而来的呢？在创世神话的异本，比如济州道天地王祭和初感祭中，主人公是天地王就相当于하늘님所以“弥勒=하늘님”是有充分学术依据的创造主弥勒是하나님

接下来是文化英雄登场神话中展示了从自然状态走向文明状态的历史发展进程包含了制作衣服、使用水火制作食物等文化英雄的要害关键是人类诞生环节，出现了金盘、银盘和五只虫子这是什么意思呢？有很多种解释，基本可以这样理解太阳和月亮分别代表阳和阴盘子是圆形的，可以看做是子宫或根源的种子圆盘本来空无一物，虫子落入其中变成人类，这象征着无极可以这样解释为什么是五只呢？这跟五行有关可以理解为人类诞生从阴阳五行而来这是一个普遍性的阐释方式之后世间的主宰者发生了变化释迦掌管现世，弥勒掌管死后世界弥勒就有点委屈啦他掌管的现世祥和太平，释迦突然出现要求一比高下结果释迦通过骗术获得了胜利现实世界和非现实世界由此分开非现实是死后世界，也就是超现实世界

还可以解释为物质世界和精神世界的分离使用骗术的释迦，属于世界神话中常见的trickster(行骗者)行骗者的骗术是为了共同体的利益而不是为了个人利益行骗也可以看做是一种智慧的体现吧应该将其解释为共同体的英雄这里包含着现实世界和超现实世界和谐相处的思想另外还体现了三教思想一共进行了三次打赌断线，结冰和开花其中包含了无极，太极和皇极之意从太初世界到万物创生的世界，再到运用万物的生活世界很多韩国神话中都蕴含着三教思想，创世神话也不例外后来弥勒通过诅咒惩罚骗术，“汝难矣，不日将盗贼横行祸事丛生”这预示着从狩猎游牧时代发展到农耕时代的文明进程弥勒的诅咒暗示文明时代将会出现混乱其实是对文明时代贪欲盛行的一种警告这可以看做是对文明导致的失衡的指责提醒人们应该追求现实世界和超现实世界的平衡追求物质世界和精神世界的平衡这就是从无极到太极再到皇极的生活状态可见，神话对于我们也有很大的启示作用

从阴阳平衡的太平时代，过渡到混乱的时代世界的混乱源于从生食到熟食，从狩猎游牧到农耕，从自然到文明的转换强调现实和非现实之间的均衡大家如果想进一步了解创世神话，可以参考以下资料朴钟声1999年出版的《韩国创世叙事诗研究》还有金宪先的《韩国创世神话》这是众多参考资料中的代表性著作下面我们来看一看这些创世神话沉淀为文化原型的过程首先，作为核心要素的创世主意味着하나님，即天帝自然、宇宙和人类是同源的神话中提到日月造就了人类这其实是神人合一，即宇宙和人类同源思想的体现还有阴阳五行思想三教思想天圆地方，无极，太极，皇极等理念在其他创世神话，比如济州道的天地王纪事中主人公不是弥勒而是天地王，他就叫做하늘님或하나님那么하나님这个词是怎么来的呢？한在韩文中有一“一”或“大”的意思，在后面加上尊敬词缀님就成了한님变形之后就成为한나님, 하나님, 한울님, 하느님含有“唯一”的意思这个称呼蕴含着某种真理关于宇宙的法则和真理这个词语和“大”、上天有紧密联系하느님这个词涵盖了하나(一)、하늘(天)、한(大)多重含义 后来演化出하나님, 한배김, 하느님, 한가운데等词语

创世神话就是上天造物、世界诞生的过程文明进步，世界失序，我们应当保持清醒，坚守宇宙和自然的根源在现实和超现实中寻求平衡，这就是创世神话的题中之义由此可以推演出文化原型的要素

前面已经多次提到的하나님思想，天地人思想，三教思想，阴阳五行思想韩国创世神话中的하나님，有别于中东地区的唯一神思想更接近于泛神论中的神格，是与天地自然一体的唯一存在也包含着无限伟大的天父形象韩国人在翻译圣经时，也借用了하나님这一称呼来指代GOD这和周边国家有很大差别中国

将其翻译为上帝，日本将其翻译为迦微(Kami)韩国并没有使用这些译法，而是选择了意义最为接近的하느님这一称呼하느님原本并不是指基督教中的唯一神，而是指创世神话中的创世主创世神话中的하느님和基督教的上帝是不一样的传世神话的核心하나님中包含着天地人阴阳五行思想在当下的语境中可以解释为，人类起源于宇宙自然的神性就应当顺应宇宙神性而生活这就是韩国文化原型的核心之一

在现代韩国社会还能看到这种思想的痕迹吗？当然有很多下面我来举几个例子现在韩国各地会在特定时间举行天祭，这就是하나님和天地人思想的体现以村落或国家为单位定期进行祭天仪式这里是纪录片“何为天祭(천제란 무엇인가)”的youtube链接大家看完之后就会有更深入的了解

还有古代都城汉阳，也就是现在的首尔古代的首尔都城有很多城门其中最具有代表性的是东西南北四大门和坐落于都城中心的普信阁分别代表仁义礼智信，源自于阴阳五行古都汉阳的城门是根据五行建修而成可见，创世神话中的思维方式一直影响到朝鲜时代甚至是现代还有研究表明，韩文的创制也受到了阴阳五行的影响还有韩国的国旗太极旗还有五方色、五方舞、五方神都源自于阴阳五行的文化原型有关资料的链接都在这里，大家可以作为参考通过这些资料，大家可以发现创世神话和文化原型的契合点

第一周关于创世神话的内容就要接近尾声了最后再强调一下具有泛神论性质的하나님这节课我们学习了创世神话中的文化原型要素以及相关的文化传承具有泛神论性质的하나님包含了天地人思想和阴阳五行思想하나님蕴含着人神合一思想，这一思想演化为后世的神明释义祭、天命说一心说等传统文化比如，巫师的各种祭祀、农乐、盘骚里、假面舞等又比如，韩国巫俗祭礼中的不净祭和初感祭在假面舞和洞神祭等活动中，都有向上天致敬的环节在日后的学习中，我们会陆续接触到另外，韩国商店的开业典礼上也常见到类似的祭礼活动就连韩国大学的庆典活动中也会有祭礼环节，这就是文化原型的体现

下面我们总结一下本课内容天人合一意味着自然、宇宙和人类本属同源共同享用一轮日月天人合一还意味着天地人合一，摆脱了二元对立思维模式的无为自然理念创世神话中蕴含着人类日常与神圣宇宙和谐统一的文化原型为了加深理解，大家可以参考我的论文《원본 이론과 트랜스이론(源本理论与超越理论)》第一周的课就到此结束啦感谢各位，大家辛苦了